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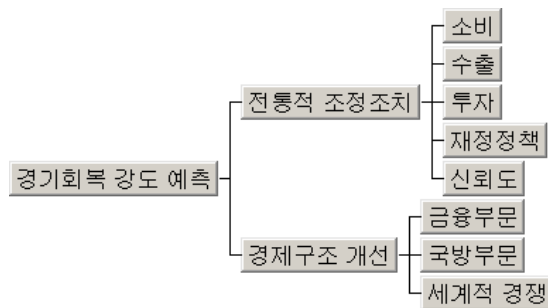
경기회복 강도 예측

전

통적으로 실질국민총생산(real GNP)가 2분기 연속 감소하면 미국의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고 판단해왔다. 반면 2분기 연속 GNP가 증가하면 경기후퇴가 끝나고 있다고 여겨왔다. 이와 같은 경험칙은 순환적 변동을 나타내는 편리한 방법이지만 경제상황의 개선이나 침체를 나타내는데 부족하다.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NBER)

은 미국의 경제 순환주기에서 실제적인 변환점이 된 시기를 찾아내는 임무를 부여 받았다. NBER은 여러 가지 경제지표와 실질 GNP의 변화를 활용하여 자체적인 평가를 내렸다¹. 그러나 자료에 근거한 평가는 지표 별로 상이한 결과를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좀더 긴 기간의 실제 자료가 나올 때까지 확신을 주지 못했다.

예측문제를 해결하는 전통적인 방법들은 경제구조에 대한 기본 가정과 과거 자료가 경제변수들의 예측에 미치는 영향에 의해 제약 받는다. 특히 전통적 방법들은 경제에 대한 영향을 조절하는 구조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경제적 침체 상황의 변화를 예측하는 데에는 유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델은 NBER에게 경제 회복이 시작된 시기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대안
매우 강함 (GNP 실질성장률: 5.5-6.5%)
강함 (GNP 실질성장률: 4.5-5.5%)
보통 (GNP 실질성장률: 3-4.5%)
약함 (GNP 실질성장률: 2-3%)

¹ Saaty, 2006, Fundamentals of Decision Making and Priority Theory.